



★피터 레이놀즈 신작 그림책★

## 단어수집가

피터 레이놀즈 글 · 그림 | 김경연 옮김

2018. 6. 20. | 228\*209 양장 | 40쪽 | 978-89-546-5172-1 77840 | 12,800원

너만의 단어에 손을 뻗어 봐.  
네가 누구인지 세상에 말해 봐.  
그러면 세상은 더 멋진 곳이 될 거야.

\_피터 레이놀즈

## 제목은 '날말'를 모아. '단어수집가'라고!

『너에게만 알려 줄게』 속에 담아 놓은 진짜 행복을 찾는 비결로 많은 독자들을 감동케 했던 작가 피터 레이놀즈가 신작 『단어수집가』에서는 소개하는 아이는 제롬.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수집가가 있지만 제롬은 그중에서도 날말을 모은다. 이야기를 듣다 왠지 관심이 가는 단어, 지나가다가 눈에 띄거나 책을 읽다가 문장 속에서 튀어나오는 단어, 기분 좋은 말, 노래 같은 말, 무슨 뜻인지 통 모르겠지만 어쩐지 그냥 근사하게 들리는 날말. 마음에 탁 들어오는 단어를 발견했을 때 호기심과 기쁨이 내려앉은 제롬의 콧잔등은 사랑스럽게 찡긋거린다. 종이에 적은 말들을 주제별로 차곡차곡 풀로 붙여 날말책에 정리하는 일은 제롬의 보람이다. 날말책은 나날이 두툼해지고 또 쌓여 간다.

## 으앗! 모두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어

그러던 어느 날 제롬에게 뜻밖의 사건이 벌어진다. 천장 꼭대기까지 위태롭게 쌓인 날말책을 옮기려다가 책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다. 애써 분류해 놓은 말들은 그만 모두 뒤죽박죽 섞여 버렸다. 코뿔소 옆에 밀라노, 파랑 옆에 초콜릿, 슬픔 옆에 꿈.

나란히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은 단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제롬은 깨닫는다. 날말이 존재했던 단어들이 뜻밖의 방식으로 충돌하고 이어지며 생겨나는 놀라운 의미의 파장. 처음 느끼는 환희와 재미로 제롬의 세계는 팽창하기 시작한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어느 날, 제롬은 지금까지 모은 단어들을 모두 꾸러 수레에 싣는다. 제롬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

## 서로 이어지고 부딪치며 새로이 생겨나는 말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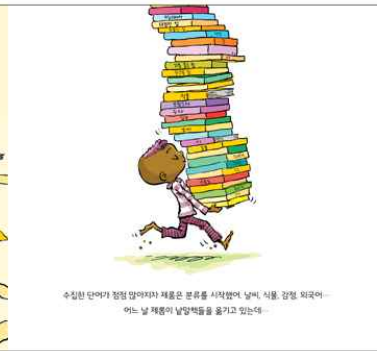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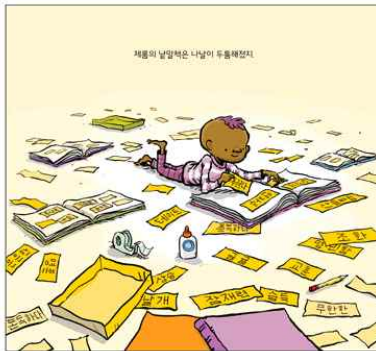
### 우리 주위에 언제나 존재하는 바로 그런 마법

우리의 하루는 말하고 듣는 행위로 채워진다. 눈을 들어 조금만 살펴보면 활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촘촘하게 에워싸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피터 레이놀즈는 제롬의 이야기를 통해 언어로 이루어진 우리의 시공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감각하게 한다. 희한한 걸 모으는 괴짜인 줄만 알았던 제롬은 어느새 문학과 일상 언어의 경계를 가뿐하게 허물더니, 언어가 애초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다시금 일깨운다. 대단원에 이르러 제롬의 얼굴을 가득 채운 웃음을 통해 우리는 언어로 묘사된 언어 너머의 감정까지도 느끼게 된다.

## 아이들 마음을 그려 내는 작가, 피터 레이놀즈의 화제작

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붙잡아서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림책 안에 구현해 내는 피터 레이놀즈의 능력은 번번이 그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페이지를 가득 메운 날말들의 압도적인 스케일, 더욱 사랑스러운 주인공의 면모, 예측을 넘어선 감동을 전하는 반전이 『단어수집가』를 가득 메웠다.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현실과 거리감이 있거나 적당하지 않아 탈락하게 된 단어들 대신, 서울 성자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비롯한 여러 어린이들이 모아 준 날말들로 한층 생생하고 실감 나는 꾸러미를 꾸릴 수 있었다. 그림책의 편집 과정에 참여해 준 수많은 제롬들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한다.



## [작가 소개]

지은이 피터 레이놀즈

『너에게만 알려 줄게』 『미술관의 초대』 『언젠가 너도』 『너를 보면』 『나, 여기 있어』 『점』 『느끼는 대로』 등 수많은 그림책을 펴낸 작가이다. 엘리슨 맥기의 글에 그림을 그린 『언젠가 너도』 『너를 보면』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지금은 미국 메사추세츠 데덤에서 가족과 함께 살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옮긴이 김정연

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이자 대표적인 번역가.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아동청소년 환상문학이론연구로 박사 후 과정을 지냈고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친구가 있어, 앞으로 앞으로!』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할아버지의 이야기 나무』 『언젠가 너도』 『너를 보면』 『책 먹는 여우』 『행복한 청소부』 등이 있다.



ISBN 978-89-546-5172-1 | 값 12,800원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인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기타표시사항 제품명 도서 | 제조자명 (주)문학동네 | 제조국명 한국 | 사용연령 4세 이상

담당 : 엄희정 (02-3144-3236) [hjeom@munhak.com](mailto:hjeom@munhak.com) 홈페이지 [www.munhak.com](http://www.munhak.com)

: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10 (본사) 03970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36 2층 (어린이편집부)

**문학동네**